

“불교문화를 배우자”

만해예술학림 백담사에 9월 설립 밀교문화대학 1년과정 신입생모집 동방대·광주문화대도 전문가양성



◇ 불교문화대학 설립은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동방불교대 불교미술과 학생들이 단청실습을 하는 장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생활환경조성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문화대학이 종단차원에서 속속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 만해예술학림이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진각종은 밀교문화대학을 개설한다. 법파와 불화종 전문 불교음악인 및 미술인을 중점 양성하고 있는 태고종 동방불교대는 올해 4년제 정규대 인가가 확실시돼 정규대를 앞둔 체제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에서 불교문화와 관련된 불교미술과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서는 광주불교교원들이 오는 3월 불교문화대학을 개설한다.

조계종이 대학원격인 학림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해예술학림(0365-462-3244)은 만해스님과 매월당 등 유서깊은 문화의 향기가 서려있는 백담사에 설립된다. 만해예술학림은 △불교미술 △법파 여산 △불교미술 △불교건축 등의 교과과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2년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님뿐 아니라 재가자도 입학할 수 있으며 한과목당 10명 인원으로 소수 정예를 선발한다는 것.

창종 50주년을 맞는 진각종은 총인원내 밀교문화대학(02-913-0751)을 개설한다. ‘진각종학’ ‘밀교학’ ‘한국불교사’ 등 종학과 불교리론을 위주로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3월 개설을 앞두고 현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1년 코스로 수강료

는 무료이다.

지난 82년 설립되어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태고종 동방불교대학(02-763-0229)은 올해 4년제 정규대 인가를 받는대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입지를 다진다는 포부이다. 법파와 불교미술과, 불교학과를 두고 있는 동방대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등과 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응시자

격을 더욱 강화해 명실상부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

광주불교문화대학(062-228-9098) 역시 오는 3월 개학 예정으로 동양 불교문화 한국불교문화 불교의식 등 교과과정이 다양하다. 전문가가 인출하는 불교문화현장유적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차 사찰음식 문화 자연건강 등의 특강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같은 문화대학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통문화학교, 올해 신설된 서일전문대 민족문화과, 용인대 불교미술전공과정 등과 맞물려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사방의 범우들이 무집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문인 함월(涵月)은 이렇게 말했다.

“교의 뜻을 논하면 만경의 창과 파 양양히 넘치는 듯했고, 선의 이치를 펴면 천길의 바람이 높이 솟는 듯하니, 지금 나라 안에서 선을 실행하고 교외에 통하는 이는 무두대사의 유종이다” 하였으니, 당시 대사가 교계에 끼친 영향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대사의 시문은 유집인 <환성시집>에 전하고 있다. 이 시집의 서문에 “(대사의)도의 본체는 산은 비어 달이 비치고, 마음의 법은 물 흘러서 꽃이 핀다. 이것이 대사의 문장이나 많아서 무엇하랴” 하였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불심시심 <74>

달팽이집 내게 맞아

斗屋宜香拙 (두옥의오졸) 달팽이 집 오졸한 나에게 맞아
支頭到夕陽 (지이도석양) 턱을 괴고 저녁나절 이리다
杜鵑啼白晝 (두견새백주) 뻘새 한낮에도 우니
方覺卜居深 (방각복거심) 이 삶이 깊은 줄 비로소 알겠다 (방각복거심)

위의 시는 환성(喚醒)대사(1664~1729)의 ‘제초당(題草堂)’이라는 시이다. 환성대사의 이름은 지안(志安)이고 자는 삼락(三落)이며, 환성은 당호이다. 15세에 출가하여 27세에 모운(慕雲)대사에게 참학하였다가 강식을 인계받게 되어, 사암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승계하니 사방의 범우들이 무집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문인 함월(涵月)은 이렇게 말했다.

“교의 뜻을 논하면 만경의 창과 파 양양히 넘치는 듯했고, 선의 이치를 펴면 천길의 바람이 높이 솟는 듯하니, 지금 나라 안에서 선을 실행하고 교외에 통하는 이는 무두대사의 유종이다” 하였으니, 당시 대사가 교계에 끼친 영향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대사의 시문은 유집인 <환성시집>에 전하고 있다. 이 시집의 서문에 “(대사의)도의 본체는 산은 비어 달이 비치고, 마음의 법은 물 흘러서 꽃이 핀다. 이것이 대사의 문장이나 많아서 무엇하랴” 하였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어린이를 위한 찬불동요집을 전문적으로 펴내고 있는 기획 ‘솔’이 이름을 ‘좋은 벗 풍경소리’ (대표 화평스님)로 개명하고 연구기능강화 등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간다.

‘좋은 벗 풍경소리’는 찬불동

기획사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동요 노랫말 발굴 등 앞장

요창작곡집·악보집 발간을 계속 하며 기존 찬불가의 체계적 정리, 레크리에이션 강좌, 가수발굴, 법회음악곡 반주대입프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불자들에게 부처님을 노래하며 불교와 친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 창출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대표 화평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린이 찬불가대회, 좋은 노랫말 발굴 등 찬불동요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널리 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730-7525

이탈종 작품전

‘생활속 중도’ 주제 40여점 ... 2월12일부터 가나화랑

서 열리는 이탈종展에는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해 오면서 또 다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최근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살아가는 일에 대한 구도적 질문이 늘 저의 그림 주제입니다. 외형보다도 인간이나 자연의 본연의 마음, 내면에 숨겨져 있는 심적 형상을 추구합니다.” 그의 그림속에는 삶과 죽음 고통 사랑 증오 이기 번뇌 어리석음 등 세사에서 느껴지는 인간사의 모든 모습이 들어있다. 현실과 비현실 공간을 넘나드는 초현실상이 조형적 특징이다. 사람과 물고기 새 꽃 산 집 탑들이 원근과 대소 양감과 질감 등 실제의 사실적과는 상관없이 화면 곳곳에 자리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현실적 조형성으로 드러난다.

이번 작품전에는 특히 ‘색즉시공(色卽是空)’으로 이름붙여진 인간의 심을 다룬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녀의 원초적이면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들이 특유의 필치로 표현되지만 결코 외설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속)



◇이탈종작 '생활속의 中道' (252x193cm).

안산불교미술학회 창립

안산에 적을 둔 불자미술가들이 미술활동을 통해 불교홍포를 도모하고자 ‘안산불교미술회’를 창립했다. 안산불교미술회는 지난 20일 안산시 스타플라자 4층 음식점에서 11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박연범씨(서양화가), 부회장에 강대원 김유연 신재한씨, 감사에 민복식 백승돈씨를 각각 선출했다.

회장 박연범씨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사상에 근거한 기획전 등 회원들의 창작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포교를 위해 해외작가들과 교류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불교미술회는 오는 5월 봉축전시회, 정기수련회, 미술관련 세미나, 법사초청 법회등의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문화 소식

은해사 한복 무료입장

문화부가 한복입은 사람에게 고공 박물관 등에 무료입장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데 이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다)가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해 화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인 소아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은 참배객들에게도 무료입장시키고 있다.

가나아트숍 인사등 개관

전통과 화랑의 거리 인사동에 본격 아트숍이 문을 열었다. 가나화랑은 지난 20일 인사동 구 민정당사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백평의 ‘가나아트숍’을 개관했다. 중·저가의 생활미술품

은해사 한복 무료입장

문화부가 한복입은 사람에게 고공 박물관 등에 무료입장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데 이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다)가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해 화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인 소아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은 참배객들에게도 무료입장시키고 있다.

가나아트숍 인사등 개관

전통과 화랑의 거리 인사동에 본격 아트숍이 문을 열었다. 가나화랑은 지난 20일 인사동 구 민정당사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백평의 ‘가나아트숍’을 개관했다. 중·저가의 생활미술품

“문화유산 이렇게 상품화하자”

관광공사(사장 이경문)가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 책자를 펴냈다. 문화관광의 비중이 점점 중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외적으로 호소력 있는 한국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연구보고서 형식의 책자는 관광상품화대상 문화유산의 유형을 선정해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상품화 대상으로는 불국사 등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등 전통민속마을, 박물관 등이 꼽히고 있고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연계성

과 편의시설 확보 △지역사회발전의 기여 △원형 보존과 보수 △문화재관리국,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유산관리체계 강화 등이 전제되어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지역방치체계의 역할 증대 △홍보물 제작성 등 해설체계 확립 △관광안내소 확충 및 시설 인원 보강 △시간간격의 기부 및 자금지원 확대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문화원기능의 활성화 등의 선결과 △향토문화축제 활용 △기존 관광안내소기능 보강 △TV 등 언론매체 적극활용 △전통의식재현 등 문화유산의 이벤트화 △민간부문의 협력강화 등을 홍보·마켓팅 방안으로 제시해 놓고있다.

출가·재가 학인 모집

21세기 불교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1월 15일~2월 15일 까지
-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 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 (특별전형)
- 모집구분 : ① 출강(부산)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4째 일요일 등교
- 교육기간 : 2년(4학기) 출강반·통신반 동일
-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5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학경 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강원(교양대)개원시 지원

※ 자세한 입학 안내서 우편으로 청구하면 빠른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우)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한국승가대학원 교무처
(대)053-952-8711 교수직통 017-501-8711

불기 2541년 1월 일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공 덕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 독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이자임결혼연구원

이름이
그리움 지어
도시의 끝 거역은
돌아옵니다

사랑과 고귀한 밤
수줍이
만약은 세뜨리고
공허한 가슴에
소중한 바람이
그대리 빛과 깨끗한 미소가 되어
가슴으로 맺어 됩니다

슬픔이
달콤 할기 스며는 그대 사랑에
종말 끝 내다
그리움으로 핏겨
가슴에 내리얹은
반 미음이 되겠습니다

대견히
사랑의 열매 내내 피도록 하고
사랑하면 눈물로
있어

고독은
대취를 기다립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사임 합장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추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 ★ 스트레스나 피로에 쌓인 직장인, 수험생에게...
- ★ 4.50대 주부의 화병, 불안, 신경질, 노화방지에...
- ★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 ★ 장타력, 집중력, 판단력 골프머리가 잠깐입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물론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
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랜딩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우편판매)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투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존이 가능한 99% 순 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걸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정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